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3호 [루체 제25732호] 주제 106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산총대로 날강도무리의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주악무도한 유엔《제재 결의》를
조작해내고 무엄하게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째서는 추악한 흥계를 토벌적
으로 드러내며 허스베리적인 전쟁팔기를 부
려내는 미체와 그 추종세력들의 작품을 무진막
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사적위력을 무
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원쑤처럼의 의지에 넘
고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초소를 굳건히 지켜
선 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을 암
살하기 위해 미처 날뛰는 미체와 그 추종세
력들의 작품을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
의 군사적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원쑤처럼의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
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
하여 밤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
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인 조국에방 전쟁승리 기념탑 표양
마당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의지에 철옹같이
봉쇄 1950년대의 조
국방위사들의 무정정
신으로 미체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임을 단
호히 처갈기고 만미대

집회에서 백승을 펼쳐갈 참가자들의 혁명
적기상으로 세차게 뛰어번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수단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뚜렷으로 사수하자!》,
《백두산총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충족할
시켜 네대와 세기를 이어온 만미대결전에
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원군이 조선민
주주의 요구에 맞게 만단의 결전결임태세
를 더욱 철저히 갖추자!》 등의 구호만들이
집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기발기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
국기들이 나ฬ어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와 조선인민군 충참포장인 조선인민군 차
수 려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유희근대장 박영식동지를 비
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장병
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
하였다.

집회는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
선인민군 충참포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맹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충참포장인 조선
인민군 차수 려명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평화국《제재결의》

를 충렬히 단죄규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에 절한 절체 인민군장병
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백두산총대로 날강
도 미체의 사상학의 제재압박과 도발책
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리고 만미대결전을
충돌산하고 이땅 혁명의 의지로 새롭게 뛰
어번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암살할 용
기밀에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걸
어온 미체와 결판을 내고야말 단호한 험
장을 내외에 엄숙히 친명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하였다.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
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 등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만류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사명과 임무

를 저버리고 미국의 폭두각시, 하수인으로
조작된 유엔이 조작해내는 불법무법의 그
무슨 《결의》같은것들을 인정한적이 없으며
전면배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유엔군》의 탈을

쓰고 신성한 이 땅에 기여들어 삼천리강토
를 헤매미로 만든 미체는 전후 만해기이상
으로써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해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

연설자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
민이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허희미를

조이며 위대한 당의 병진로선을 절사로 달
리고 투진막강한 국력을 억제같이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다시금 끌어
이루어주고 있다.

그는 놈들이 우리 거울되는 정교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소

동에 빼여달리고 있는 이상 인민군대는 이
미 철명한데도 무기의 총대로 날강도 미체

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앞에 세

지른 빼악을 친탁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이 세상 원인대적
이 풍 채로 립비를 듣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건전에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간직

하고 철의방선초소마다에 억년 드는지

않는 수령결사용워의 성세, 무서워하는

방울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오늘의 전투훈련을 조국의 운명을 관

가리하는 격전과 같이 여기고 당시 계시

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
함으로써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툰튼히
준비함에 데하여 그
는 언급하였다.

그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전쟁과 밭동을
에리하게 주시하여 만
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춤으로써 일만 명령
만 내리면 미체와 피
의적제당을 떠도 없
이 끌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
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
하여 미체남편의 제재
액동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정수리에
준엄한 철주를 내리
는 실정으로 사회주
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민총동결격의 맨
앞에서 세상을 끌어
있다는 제2, 제3의
여명거리신화를 끊임
없이 백승함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백승멸
치는 강용한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
시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지휘성
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를 힘을
웨치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싸움준
비를 끊임없이 완성
하며 계군을 미체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

을 칠저히 짓부서버리기 위한 후회경사
에로 힘있게 조직통원하여야 한다고 말
하였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
지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원쑤들의
원쑤용노할 모략책동을 걸을마다 무
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의 명군자취를
충직하게 반드시 배우는 백승혁승의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유일적명군체계
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
계에서 급급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땅이 가리
키는 한방향으로만 풍구를 내대고 끝까지

나아가는 무적질승의 혁명강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장병들이 정치사상강군화, 도
덕강군화를 쟁기동으로 들어취고 위대성교
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의 일종속에
접한 모든 인민군이 훈련원들이 조선인민
의 철천지원주 미체와 쓸개빠진 배국역적
들, 너절한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우는 분
노로 심장의 데운 풀을 끌어이고 있다

고 있다.

록군상장 윤동현은 유엔안보리사회의
반평화국《제재결의》를 단호히 규탄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모든 인민군이 훈련원들이 조선인민
의 철천지원주 미체와 쓸개빠진 배국역적
들, 너절한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우는 분
노로 심장의 데운 풀을 끌어이고 있다

고 있다.

2 면으로 계속



백두산총대로 날강도무리의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1면에서 계속

그는 오늘의 준엄한 사태를 통하여 천만 장병들이 다시 한번 심장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승냥이의 본성을 죽이너무려질 때까지 절대로 면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오직 총대로만 지킬수 있다 는 불변의 진리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조국통일대전, 반미최후결사전은 수령사수전이라는 두 철팔 판점과 힘장을 가지고 모든 작전과 전투를 수령결사용위전으로 일反正시키며 인민군장병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훈복술 바쳐 보위하는 선결단결의 성세가 되고 방한벽이 되도록 함께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

사상을 깊이 제독하고 적들의 이른바 『에방전쟁』, 『설계타격』과 같은 정의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절부서버리기 위한 기묘하고 평활한 전술과 전투방안들을 적극 연구도 일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부대를 이끌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도에 그어진 뿐은 화살표마와 노도와 같이 전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이 눈앞에 박두한 형에 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적동상태에서 적들의 일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놈들이 감히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고 제도붕괴를 노리는 『비밀작전』을 벌려놓으려 한다면 수백만 로동적위군,붉은 청년군위대원들을 포함한 전민항전으로 짓뭉개버릴게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조선인민군 흥창모토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선명한 모든 군사적조치들이 결코 복수의 충돌을 악통실에 밀어넣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현우들을 조준경안에 완전히 걸어놓은 상태에서 당의 최후공격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는 만약 적들이 이 땅에 꿈틀내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물아온다면 천금같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파 민미녀결전의 승전포성을 장래 하에 울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록군데파 려상길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군의 정치일군들과 군인들의 이름으로 전족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하늘, 땅, 바다초소의 군인들과

분분호초 만전을 기하고 출동대기상태에 있는 영유한 특수작전군집단의 유탄총사들은 적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으로 만장학련 복수의 충돌실에 밀어넣고 미제를 충렬기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투진지와 훈련장들에 좌지를 정하고

군인들속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조국건지수호정신과 두철한 주적관을 심어주기 위한 화선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

린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모든 군인들이 전화의 리

수복, 조군실이 되어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총대로 태두의 대업을 기어이 이룩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면 그 어떤 천만대적이 떠벌여들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최고수뇌부를 억척같이 지키며 당중앙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갈 김정은혁명 강군, 혁명적군의 확고부동한 신념과의지를 담은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쳤다.

집회는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영도를 충정으로 믿어서 백두산홍대로 천년숙적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제작동과 무분별한 전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일당겨나갈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의 떨직의 기상과 불례의 위용을 험하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블은 칼로 미제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 진행

주체의 혁강국, 새제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존엄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에 걸을 뒤고 사상회의 제재압박과 도발핵통에 빠여달리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전태비의 보복의지가 온 나라 강산을 용암마냥 끓어 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민보안성 군무자집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쳐갈기고 계급의 블은 칼날을 더욱 예의하게, 서술주로 계비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정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일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부군 장병들의 혁명적의지로 세차게 막았고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수단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만평회국 〈제재결의〉를 단죄규탄, 전면 격灭한다!》, 《선군의 위력으로 만미성전에서 백승유 떠치자!》,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와 선전화들이 집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일민보안성 최부임동지와 강철운 조선인민내부군 정치국장, 일민보안성, 평양시안의 일군들, 보안원들, 내부군군인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원만이 흥복된데리파》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최부임동지가 광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내부군총장 김종환은 전체 조선인민내부군 장병들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와 일민앞에 저지른 미국의 죽악한 범죄의 대가를 친체배로 결산할것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민



주체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고 주대없는 비열한 놀이 거수기가 되어 이번 《제재결의》를 무마번것은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걸길 한자들의 단밀미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수차례에 걸친는 제재도 입력도 우리를 놀라울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주적실력을 더 크게 벼려주고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걸과만을 가져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망상

에 사로잡혀 극단의 군사적모험과 제재압박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로부터 멀을것은 수치스러울 배배와 최후멸망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초보적인 정의도 뛰어난지도 다 웨버리고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맹종명통한 주변나라도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수차례에 걸친는 제재도 입력도 우리를 놀라울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주적실력을 더 크게 벼려주고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걸과만을 가져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본적이 없고 그 어떤 압력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끊끗이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놈들이 춘수없이 선불질한다면 절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수 없으며 우리는 지역자강의 불변침로에서 1mm도 물지 않고 끝까지 꿈

바로 풀진해 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놈들이 춘수없이 선불질한다면 절

민총결사전을 벌려 적들에게 성렬적인 라

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팽성

어리를 영영 절대버리려는것이 우리의 확

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보안기관 일군들과 일민내부군 장

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두정에 용감히 뛸쳐나설 때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강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

린 《참수작전》을 획책하고 있는 미제의

엄중한 도발에 대처하여 모든 일민내부군

장병들이 헌법만결의 성대가 되고 억년 드

늘지 않는 방랑비이 되어 당중앙위원회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대양궁전을 결사보

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배

전택승의 명도따라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

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내부군소장 윤계수는 미국과 그에 맹종

하는 어중이떠이들이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원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꾸며내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토로하였다.

그는 만평화국 《제재결의》가 조선이라는 사회주의 강경보루를 이행상에서 기어고 암에 버리고 우리 민족을 무왕히 펑살시켜려는 식인종세력들만 조작해낼수는 조선대미문의 극악한 반인륜적범죄문서이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도인민보안일군들은 세기를 두고 쌓이고 쌓인 우리 군대와 일민의 전현의 한과 분노를 다 학살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신성한 우리 자주권에 대한 만족한 침해로 조선족의 단죄규탄하며 단호히 벽격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일민이 정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정의의 결사항전으로 맞아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수도인민보안일군들이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어备案을 풀어버리고 배우산대국의 모든

기치 이 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천진만결의 성세, 땅에 가

되어 결사옹위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만약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거

들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는 우주적법의 총결사전에 떠

쳐나 무자비한 철퇴로 가장 비참한 죽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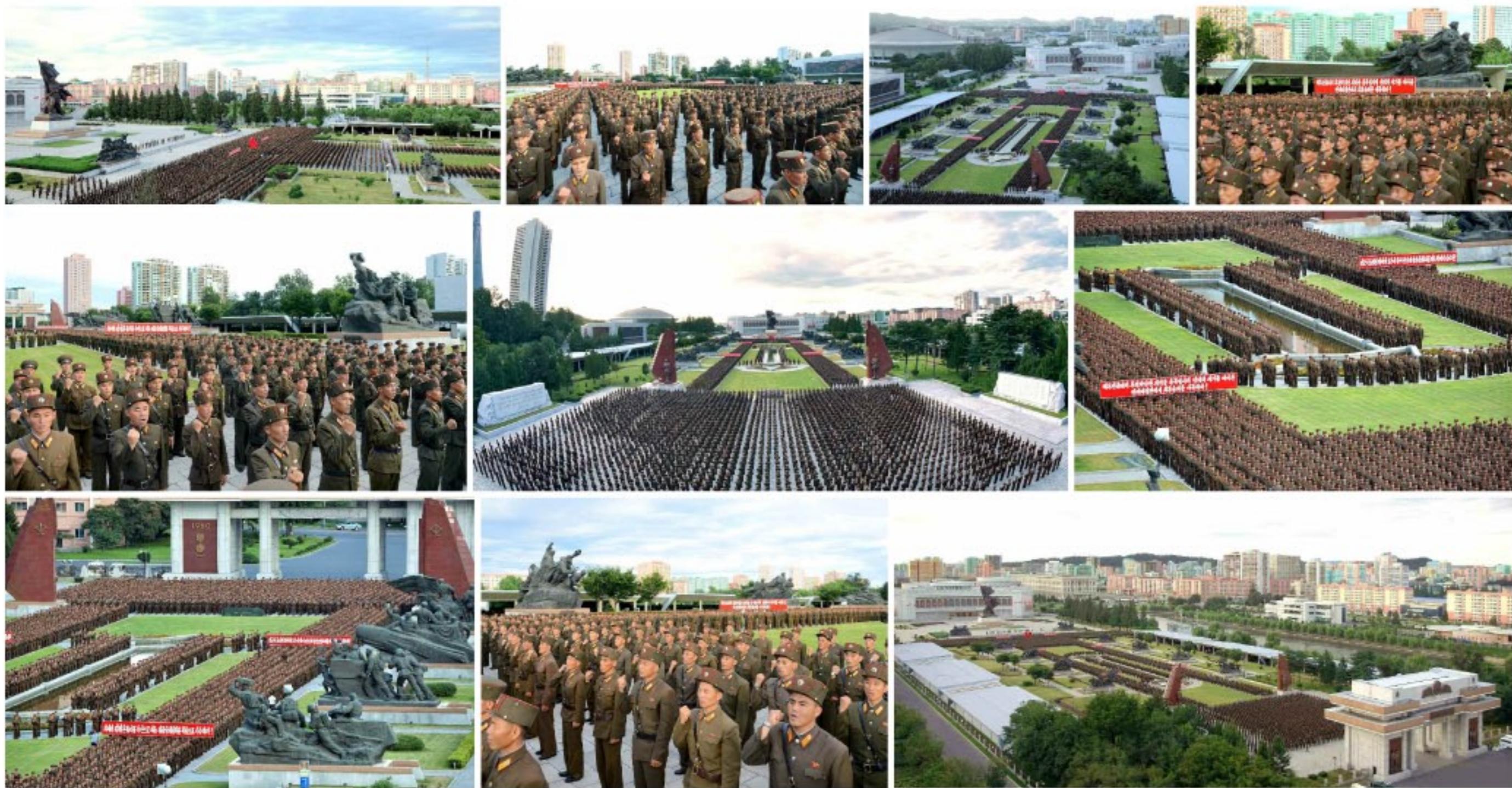
피멸을 안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일민이 위대한 당의 병진로선

따라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일민의 랙원을 어떻게 일깨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4 면으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싸움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블은 칼로 미제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 진행



3면에서 계속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웠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께서 온력을 바쳐 지켜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을 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림으로써 최고사령관의 내부군, 무자비한 대적대로서의 사령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내무군관 리창월은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비사회를 도용하여 절대미분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압살하려는 용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높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우리에게 잘 한날, 기쁠 힘방출도 들어오지 못하게 악랄하게 학동한 미국이 오늘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서 광그리 밟살하려고 피를 물고 남뛰고 있다가 하면서 미제야말로 인투겁을 쓴 이수의 푸리,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말하였다.

승냥이가 양으로 번 할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번 할수 없으며 날강도는 오직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자기와 맞선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를 폭포로 알고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만약 미제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전인민적인 충결사건에 파감히 떨쳐나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쌓이고 쌓인 천활의 피값을 친배배로 맡아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우리의 운명이 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갈때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전쟁판점으로 뿐만히 푸

장하고 원쑤들을 써도 없이 짓뭉개버리기 위한 쌔울준비를 완성하며 중요대상전설에서 연속승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니라.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전체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한 몸이 그대로 총족단이 되고 혁란두가 되어 가증스러운 미국이라는 맹렁여리를 지구상에서 혼적도 없이 날려보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반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한 오늘의 총동력전에서 당파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무의방비, 평온은 맹수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전지를 철옹성같이 다져나간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집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성 룰

조선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역사이래 우리의 피가 이같이 펼쳐졌을 있었던다.

백두산이 노호하고 산천초목도 분노의 서슬 앙고 좌우 땅을 친다.

지난 8일 당보의 용근 환면을 짹재우며 전 세계에 전해진 조선의 북단성명들!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전진의 가로막을 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제결의》를 전면반대하는 조선인 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비롯한 여러 성명들을 자자구수 새기는 인민의 실상은 협의의 기세와 보복의 지로 활활 탄을었다.

정세를 최극단으로 끌고가다 못해 감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폭언까지 헤쳐지는 장례무리를 풀어지 하지 소란耗费 전진항전기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위엄에 무한히 충실했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들을, 청년들을 이끌어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들을 멀지없이 문화해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이며 안을 것입니다.』

불의는 멀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돌으파, 세계여!

조선의 광장과 어촌, 농장과 대학 들에서 울려나오는 불노와 규란의 목소리를, 그것이 어떻게 무서운 철수가 되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가!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밟았지.

－역시 속적 미제와 충경상하자.

조선로동당의 영웅청년대 군의 본래를 보여주자.

－미국놈들에게 단단히 벼루를 가르쳐줄 때는 왔다. 《제제》를 하겠으면 하라, 이 조선이 또 어떻게 군대를 끌어온다.

－당장이라도 미제충당이들의 사지를 쇠장대로 훼여 가증스러운 대갈등을 일으키며

자주와 정의의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미제가 우리를 물라도 너무도 모고 날뛰고 있다.

최근 미제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유엔의 초라한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는 주제의 해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짚어 한이발빠진 늘은 송방이의 단단마법학이다.

세상에서 헤엄치게 제일 많이 하

고 떠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하면서 해체권을 영향력의 유지해보려는 야망으로 꾸물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미제가 우리의 자주적위력과 무역강점을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

실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미제의 발

작대세력의 가장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책 등과 함께 북극핵전쟁방어

위험계선을 넘어 극히 무모하고 분

발없는 실전행동단체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해공력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세로운 방탄경쟁과 남북』은 공공연히

읊나오고 『침수작전』과 『대북세

라격』, 『밀작전』과 『내부교란작

전』, 『특수작전』이라는 전면적인 실

행단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편두들은 오상하고 있다. 상

태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해법비

법에 끌고와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

사적모임과 악당적인 제재책동을 벌

리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

고이다. 그것은 또한 반세기 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체와 해위협공장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범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강탈하여 남뛰는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경기방동은 우리에게 해외민족의 질량적강화를 위한 결호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으로 걸음걸음을 미제를 통쾌하게 쫓쳐온 선군조선은 전승의 주역이 어려여오는 이اه의 7월에 최후승리의 촉초마방장에 한 힘에 힘을 더해온다. 행성을 훤헌들며 성공높이 솟구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장애현상을 기록, 가슴스러운 원부의 소굴을 살피면서 불태워버린 대양에 멀찍이 험을 물이온 그 서슬로는 기상은 적들을 훈비백색에 하고 온 세계를 격진동시

기였다.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성대

히 거행한 우리의 열병식을 지켜본 세계인들은 포신이 걸어진 주제로

와 신령령크, 대구경방사로, 지상대

공공조례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등장하고 애시당초 철갑모자를 쓰고 얼굴에 위장코트를 막론 특수부

대대원들은 보무당당히 행진한 것도

이제로 뛰어넘지만 단연 눈길은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7종의 전략무기들이라고 하면서 제세기 무장장비들을 최소화하는 청정원무기체

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선군조선은 헌원 정의의 희성을 터치하고 있다.

지금 내외여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오늘 미국의 군사개혁을 약화시킨 및 가지 요인중에서 단연 첫째로 요인은 바로 우리 해강국의 정체를 확보한 것이다. 즉 우리의 강력한

해역제재력이 미 국의 군사예권증에서 도 가장 핵심적인 핵도끼를 차명인 과학구를 내고 전진의 절박

적구도를 완전히 뒤바꾸어놓았다는 것이다.

행진시기 미제는 유럽과 아시아에

서 전면전과 국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두개의 전쟁전략을 내놓았으며

갖추어져온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넣던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위협

공간에 뛰어들어 전쟁제재력을 스스로 허물고 전쟁의 참화를 들었다.

우리 나라가 받고 있는 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간은 민사합의 정판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하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충리를 알아오신 우리 주님의 충중한 명도에 데 하여 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저어 대조선적대시정체작성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관료들도 김정은 쇠고령도자는 의지가 굳세고 강경하시며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적으로 옮은 정가들이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힘은 미 대성공은 배우의 두진 드링강에 하는 쇠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예지와 대체로 배우는 평양. 드링한 병도력이 압이온 민족사적승이었다.

결로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며 조

간에 좋으니 이룩된것도 아니다.

한반중에도 이쁜새싹에도 아들이출한 시험발사현장을 들은수없이 찾으시어 새령의 첨단도로케트개발의 길을 완치한자

같은 흐름으로 맞이하는 쇠고령도자들은 그들이 원래는 미성공으로 맞았던 그들이

우리 국방과학진사들이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능력을 최대로 달휘하게 한 원천으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져 있다.

주제의 해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서의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하였다. 각종 대군도로케트들의 디자인이며 평원적인 탐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에서 트밀사까지 뛰어 성공시킬 정도로 우리는 마침내 침략과 살육의 원흉을 최강의 해역제재력으로 놀리더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불

경을 다 보고 절은 것을 더워졌다.

지금 적들이 우리의 단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그렇듯 걸을 먹고 악을 쓰며 짓고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

마찬가지에 대에 차부심만 대체

주고 우리가 살 걸, 우리가 잘 걸은 오직 이 걸뿐이라는 신념인 굳혀졌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불에 뛰어

나온 세계에서 차지하고 가슴부

듯이 확신하고 있다.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 실책에서 쓰

디른 교훈을 찾고 우리 세계를 인

정할 대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도전제로 또다시 해전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상 평소에서도 소스라

칠 경발의 불벼락을 퍼우자는 현

군민의 합성이 이 힘에 차지되고 있다.

국도의 궁지에 끌린 미제가 「제제」

와 「봉쇄」를 우리 생존을 가로막을 마지막 「무기」로 대들고 있지만 이

달로 가물어 바다물이 마르기를 바

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이번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

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으로 몰아

가는 대에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

회의 약한 「제제」를 꺼내놓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한사코 말살하는 저들의 욕망한 속

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것이다. 하

나마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아온 그토록 엄혹한 속에서도 얻

았던 것은 우리 군대와 민족의

기적만을 상상하지 못하는 미제가

우리 군대와 민족을 속이고 있다.

미제가 우리를 물라도 모고 날뛰고 있다.

생전 종식이후에 그것은 조선반도와 중동지역에서의 동시전쟁전략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회 강의의 힘을 더해 날뛰는 당상에 불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당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라는 경제발전도 인민생

활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에서 혼들리고 해도 바꾸려고 생

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립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힘에 의한 강원이 편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는 세계에서 자위적 국방력을 떠나 대체 생활할 수 없다.

지금 훈련들이 일을 모아 문제를 하는 우리의 해양전력보유는 무모한 시도로 걸어치우자고 해도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사적 위력으로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해양전력동반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군